

초보자를 위한 아나키즘

Introduction to Anarchism

Ⓐ나방



리즈 A. 하일리맨 Liz A. Highleyman 지음

조약골 dopehead zo 번역

## 초보자를 위한 아나키즘

리즈 A. 하일리맨

- 이 글은 1988년 리즈 하일리맨과 (지금은 없어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아나키스트 그룹 블랙 로즈가 작성했다.

### 무엇이 아나키즘인가?

아나키즘은 오해로 둘러싸인 하나의 정치철학이다. 이것은 대부분 아나키즘이 다양한 사고방식이어서 단순한 슬로건이나 당 노선들로써 특징지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사실 10명의 아나키스트들에게 아나키즘의 정의를 묻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10개의 각각 다른 대답들을 얻을 것이다. 아나키즘은 단순히 하나의 정치철학 이상이다. 그것은 삶의 방식으로서 정치적, 실용적, 개인적 국면들을 모두 포괄한다.

아나키즘의 기본적 주장은 위계적 권위 -**그것이 국가든, 교회든, 가부장제 혹은 경제**

**엘리트들**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데 본래적으로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창조성, 협동, 그리고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권력은 원래 부패하게 되고, 권력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영구집권과 권력을 늘리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어 주민들에겐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윤리는 개인적 문제이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의 안녕에 기반을 두어야지 사법부나 종교계의 압력에 의한 법제정(미국의 헌법 같은 것들)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아나키스트 철학자는 개인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신봉한다. 가족주의적 권위자들은 비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하기 보다는 엘리트들이 대신 결정을 내리고, 욕구를 대신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게 된다. 권위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결정들, 예를 들어 무엇이 가치 있는 죽음이고, 죽일 만한지(**징병제** 혹은 **낙태** 등)를 억지로 지배하려 할 때, 인간의 자유는 현격히 감소한다.

아나키스트들은 다양한 형태의 억압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이성애중심주의, 계급지상주의, 국수주의를 포함하여**-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며, 다른 억압들이 엄존함에도 단 한 곳에만 저항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나키스트들은 세계를 바꾸는 방식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반드시 상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아나키스트들은 현존하는 폭력적인 제도장치들의 전복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과 폭력적 행동을 포함한 전략과 전술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지만, 거의 대부분은 단순히 현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새롭고 더욱 인간적이며 더욱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역사속의 아나키스트

아나키스트들은 역사적으로 혁명적 운동들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1798년에 시작된 프랑스혁명은 강력한 원시-아나키스트적 요소를 지녔다. 피에르 조셉 프루동, 피터 크로포트킨, 미하일 바쿠닌, 그리고 에리코 말라테스타 같은 아나키스트들은 19

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혁명적 ана키스트 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ана키스트들은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에서의 혁명적 운동에 본질적인 공헌을 하였으나, 볼셰비키가 권력을 공고히 하자마자 아주 무자비하게, 억압당하였다. 1936-1939년의 스페인 혁명은 ана키스트 실천을 대규모적으로 드러내 보인 무대가 되었으며, 그 속에서 ана키-생디칼리스트 조직인 FAI와 CNT는 실현가능하고 비위계적인 사회, 경제적 대안을 성공적으로 창조해냈다.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노동조합 운동(예를 들어 '세계산업노동자들(IWW)')은 ана키-생디칼리스트의 영향을 받았다. 엠마 골드만과 알렉산더 버크만과 같은 주요한 ана키스트들은 1900년대 초반에 걸쳐 다양한 급진적 움직임들에 참여했다. 많은 사회적 변화와 1960년대의 대안적 삶의 형태를 추구하는 운동들(일부 여성주의운동, 동성애해방운동과 반전운동, 언론자유 운동 등을 포함하여)에는 강력한 ана키스트의 조류가 있었다. 비록 많은 경우에 그들은 맑스주의자/레닌주의자/마오주의자에게 억눌렸거나 그들에 가려졌지만 말이다.

### 아나키즘은 무엇이 아닌가

아나키즘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공산주의(Communism):** 많은 ана키스트들이 공동체주의와 집산주의를 중시하는 반면, ана키스트들은 현존하는 그리고 최근에 무너진 공산주의자(더욱 정확하게는 맑스-레닌주의)국가들의 전체주의를 거부한다. ана키스트와 맑시스트의 분열은 1870년대에 ана키스트들이 맑시스트들이 다양한 명목으로 (독재적) 권위주의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인식하면서부터 심화되었다. 맑스-레닌주의 그룹들은 전통적으로 전위당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사상, 즉 기본적으로 반권위주의적이며 최대의 개인적 자유를 강조하는 ана키스트들과 정반대되는 사상을 강조해왔다. 정통 맑시즘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가는 '소멸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에, 우리들 ана키스트들은 공산주의 정권들의 국가 권력의 강화와 이에 따르는 억압, 순응에 대한 강조를 반복해서 보아왔다.

**절대자유주의(Libertarianism):** 절대자유주의자들은 자주 ана키스트와 혼동되며, 사실

많은 점에서 중복되기도 한다. 둘은 모두 개인적 자유와 국가체제를 없애고 싶은 욕망을 강조한다. 많은 절대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을 가장 중요시하며 분별 있는 사리사욕추구의 원칙을 강조한다. 많은 아나키스트들은 서로 돕고 그 지역 모든 구성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다 중요시 한다. 절대자유주의는 그 경제적 관점에 의해 가장 자주 특징지어지는데, 그것은 제한 없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가장 중요시하며(몇몇 옹호자들은 스스로를 "무정부-자본주의자들" 이라 부른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의 사용을 용인하며,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어떤 정부의 간섭도 반대한다. 그리고 경제적(일반적으로 금전적)용어로 판단되지 못하는 가치들은 무시해버린다. 절대자유주의자들이 반국가적인 반면, 보통 그들은 모든 형태의 지배와 위계질서(절대자유주의 철학은 종종 ‘적자생존’ 혹은 ‘(경제적)힘이 곧 정의’ 를 위해 노력한다)와 모순 되지 않으며, 사회의 권력관계(특히 경제적 권력에 기초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아나키스트들은 더욱 사회주의적인 관점을 갖는 경향이 있고, 부유한 자들은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운이 없는 자들은 불공평한 고통에 시달리게 만드는 어떤 체제라도 폐지할 것을 선호한다. 아나키스트들은 개인적 술선수범, 지능, 그리고 창의력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그런 능력을 조금밖에 갖지 못한 사람들 역시 당연히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객관주의들은 절대자유주의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절대자유주의 정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하며, 선거개혁, 마약법률폐지, 그리고 정부의 조정을 줄이는 문제 등에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다. 많은 절대자유주의자들은 어떤 형태의 정부는 필요하나 그것은 가능한 한 최소화되고 간섭이 없어야 된다고 믿는 ‘중도-아나키스트’들이다. 아나키스트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의 경제체제가 존재할 것인가의 문제는 미해결의 문제이다. 어떤 아나키스트들은 모든 형태의 자본과 시장경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다른 이들은 노동자소유제와 완벽한 참여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체제를 선호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아직도 서로 자신의 체제와 가치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다양한 경제체제가 공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자유주의(Liberalism)': 미국에 퍼져있는 정치적 관념은 아나키즘을 좌익과, 그리고 좌

익을 자유주의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양에서도 질에서도 실질적인 차이들이 있다. '좌익'의 생각은, 많은 현대 정치학이 전통적인 좌익(자유주의)/우익(보수주의) 스펙트럼에서 벗어나는 경향이므로 1990년대에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들이 '진보적인' 주장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즘은 전통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이론가들은 경제적 권위주의의 정도와 사회적 권위주의의 정도를 두 개의 분리된 축으로 바라보는 (이론적) 기반을 제안해왔다. 경제적 자유를 두둔하는 이들은 자주 사회적 자유를 적대시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현대의 진보적 정치학은 개인의 주요한 관심과 협력관계는 인종, 성 그리고/혹은 성적 성향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정체성 정치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비록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정체성 정치학에 많은 시간을 쏟지만, 더욱 깊이 있는 아나키스트 철학은 그렇게 (인종, 성 등으로) 나누는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될 날을 열망한다. 자유주의자들은 현존하는 제도를 개혁하는 노력(투표, 로비, 조직적인 시위 같은 수단들을 통해서)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나키스트들은 더욱 근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썩은 사회제도들을 완전히 갈아 치우길 갈망하며, 어떠한 형태의 국가주의자들의 간섭에도 의존하지 않고 직접행동을 통하여 더욱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아나키스트들은 일반적으로 혁명적 변화 뿐만 아니라 진화적인 변화의 유효성 또한 인정하지만, 그들은 사회의 진정한 재조직을 위해서는 어디든 존재하는 위계적 지배관계를 뿌리째 뽑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아나키스트들은 권력 자체의 구조(그것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적'이든 획일적이든 간에)가 문제의 근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해결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아나키스트들은 비록 소규모의 지역적인 개선이라도 가치가 있다는 믿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조직적 저항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런 행동들이 단지 임시적인 행보에 지나지 않으며,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을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무정부적 허무주의(니힐리즘):** 니힐리즘의 신조인 '모든 것에 반대함'과는 달리, 아나키스트들은 무작위적인 폭력, 파괴 그리고 '모두 자신만을 위하자'라는 무법혼란을 조

장하지 않는다(비록 이런 철학을 갖고서 스스로 '아나키스트'라고 부르는 부류는 항상 있지만). 아나키는 혼돈과 같다는 일반적 인식은 권력을 쥔 자들이 주입시킨 유행성 믿음에서 비롯된, 한심스러운 오해이다. 아나키스트들은 효율적이고, 잘 조직된 그 대로의 사회가 비위계질서적, 탈중앙집중적, 그리고 참여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믿는다.

### 논쟁의 몇 가지 이슈들

아나키스트들은 여러 이슈들에 관해 전혀 다른 관점들을 갖고 있다. 의견불일치의 대표적 영역중 하나는 개인 대 지역사회의 문제이다.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들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하는 반면, 아나키-공산주의자들(그리고 아나키-생디칼리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그룹의 이익에 초점을 둔다. 상호부조론자들은 그 사이 어느 썸엔가 존재한다. 이상적인 아나키스트의 사회에서는 전체로서 지역사회의 요구들이 개인들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고 충족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나키스트 운동에서 또 다른 논쟁은 생태환경론과 테크놀로지 이슈들에 관련된다. 고전적인 아나키즘은 과학과 합리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맑스주의 견해들과 유사성을 보이며, 기술적 진보는 일반적으로 사회에 이로울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준다. 많은 현대 아나키스트들은 기술은 본래 선하거나 악하지 않으나,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에 영향 받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최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법으로 면밀히 조사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 다른 동시대의 아나키스트들은 반-기술적, 환경중심적 시각(가장 극단적인 원시주의자들과 새롭게 등장한 기술혁신반대주의자들)을 견지하며, 아나키스트 사회는 오로지 기술적 진보를 거부하고 더 원시적이고 지역화된 환경조화적 삶을 통해 달성된다고 믿는다.

민족주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나키스트들은 국제주의(혹은 그보다 '무국주의')를 옹호하고,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국가가 인공적인 분리를 인민들에게 조장함으로써 그 권력을 증대시켜려는 시도의 명백한 표시로 인식한다. 민족국가는 인

구의 하층계급은 전세계에 걸쳐 비슷한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다양한 엘리트들의 이해를 위해 복무하는 구성물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어떤 민족해방투쟁들(중동에서의 팔레스타인, 미국의 흑인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전세계 억압받는 토착인민들의 노력 같은 것들)은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작은 독립국가들은, 권위적임에도 불구하고, 착취를 자행하며 획일적인 제국들보다 더 낫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 현대 아나키스트 운동의 조류들

오늘날의 '아나키스트 운동'은 더욱 정확히는 다양한 정치적, 철학적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는 서로 다른 운동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고전적 아나키즘의 원칙들을 기초로 삼는, 그리고 가끔은 그것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동시대 아나키즘의 범위를 넓히고 전통적 아나키의 견해를 재정의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다.

아나키-여성주의자들(여성주의 아나키스트들)은 여성주의와 아나키즘의 이상을 융합한다. 아나키-여성주의자들은 고전적 아나키스트들보다 여성해방과 가부장제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쏟지만, (일부 여성주의가 해왔던 것과는 달리) 다른 형태의 억압들을 제외하지는 않는다. 모든 여성 아나키스트들이 자신을 아나키-여성주의자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이 아나키-여성주의자가 꼭 여성일 필요는 없다. 그 구별은 대부분 자신의 가치들이 얼마나 '여성 중심적'인가와 지배에 대한 어떤 관점이 강조되는가의 문제이다. 다른 많은 현재의 정치적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성역할 분리의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위계적이고 부계적인 사회적 질서에 의해 강요되어온 인위적인 성적 역할의 분리가 아나키스트 운동에서도 지속되는 것은 아나키스트들이 성취하기를 바라는 진정한 평등의 창조 그리고 장벽들의 제거와 서로 상충될 수도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지배해온 운동에서 여성의 자리를 지킬 필요를 느끼며, 또한 여성문제에 대한 정당성은 반드시 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식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아나키-여성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문제들에 대한 국가주의적 대처방안들(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시도되는 포르노에



대한 검열 등)을 거부하고, 자기-능력 발휘와 직접행동을 지지한다. 아나키-여성주의 조직은 탈중양집중화, 참여적인 의사결정, 풀뿌리 단계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강조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아나키-여성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잠재능력의 실현이 전통적으로 분리된 성역할들을 뛰어넘으며, 모든 인간들에서 유익한 ‘남성적’ 이고 ‘여성적’ 특질들의 발달과 모든 관계들에서 평등을 장려함으로써 가장 잘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다.

많은 현대 아나키스트들은 자유의지와 자기결정의 이상들을 그들의 개인적 삶에 적용시키는데 집중한다. 이런 경향 중에는 성, 가족, 그리고 개인들간의 관계들의 영역에서 다양한 옵션들을 인정할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관계들은 자유로운 선택과 모든 개인들의 동의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정부나 종교 혹은 사회의 제한들에 제약당해서는 안된다. 많은 퀴어 아나키스트들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자, 그리고 특히 양성애자**-이 존재한다. 아나키즘이 이런 전통적인 범주화 획책들을 깨부수기 위해 쏟는 노력은 특히 비관습적인 그리고/혹은 주변화된 성정체성을 가진 이들과 관련되는 것 같다. 여성주의자들처럼, 어떤 게이/레즈비언/퀴어 그룹들은 반권위주의적 원칙들과 직접행동들(예를 들면 **지하에서 주사기교환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에이즈 활동가들과 비공인 마약 판매 클럽** 등)을 포용한다. 결혼, 아버지중심의 핵가족제도, 강요되는 자녀양육 등이 당연시되는 것은 권력에 있는 자들의 이해에 복무하기 위해 마련되어 온 것이는데, 아나키스트들은 더 널리, 오랫동안 행해져온 이런 옵션들보다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대안적 관계의 추구, 즉 비일부일처제, 대가족, 공동육아 등을 강조한다. 아나키스트들은 일반적으로 동성애관계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기를 바라기 보다는 개인적 관계들을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기를 원한다. 아나키스트 동성애자들 역시 일반적으로는 군대 같은 공격적인 사회기관에 동성애자들의 숫자를 늘리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고전적 아나키즘의 무신론적 집착(크게는 전통적, 권위적인 종교기관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된)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현대 아나키스트들은 다양한 다른

종교들과 기존 교단에서 파생한 해방신학의 영적인 성질을 강조한다. 이것은 인간 잠재력의 극대화는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그 인격과 문화의 정신적이고도 초월적 측면들 까지도 필요로 한다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도덕의 영역에서, 이런 성향의 아나키스트들은 법적, 도덕적 권위를 선언하기 보다는 개인적 책임과 타인들에 대한 배려를 더 중요시 한다. 정신적 아나키스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삶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들의 믿음은 보통 환경보호적, 자연중심적 아나키스트들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들 사이에서는 ‘성스러움’이라는 관념과 ‘상부명령’에 대한 의존이 전통적인 계급질서의 이념을 강화하며 완전한 자유의 충족에 적대적이라고 믿는 풍부한 무신론적 요소들이 남아있다.

펑크족, 대안미술, 레ιβ족, ‘데드헤드족(deadhead-록밴드 그레이트풀 데드Grateful Dead를 추종하는 마니아 집단으로 독특하고 자생적인 하위문화를 형성했다)’와 급진적 학생들의 문화는 보통 아나키스트들의 이상을 신봉한다. 이런 젊은이들은 집단동거, 점거생활, 정보소통같은 직접행동과 주체적 방법들 그리고 식량협동조합, 독립적이고 법인을 통하지 않은 음악제작, 배급 같은 경제적 대안 마련 등에 기반해 저항적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이것을 통해 소비사회에서 만연하는 부정과 삶으로부터의 소외 등을 탈피해 나가려 한다. 이런 젊은이들은 고전적 아나키즘(이라는 라벨을 붙이지는 않지만)의 많은 교리들을 받아들인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저항적 활동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반권위주의적이고 자결주의적 원칙들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적용시키는데 더욱 노력한다. 그러나 어떤 현시대의 아나키스트들은 이런 ‘생활방식주의(lifestylism)’를 피하며, 그 대신에 보다 넓은 사회변혁을 위해 모양을 갖춘 그룹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더욱 집중한다.

아나키스트들은 비공식적인 한시기적 잡지에서 꾸준히 지속되는 신문과 책 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의 출판 인쇄 계획에 참여한다. 아나키스트들은 점점 더 많이 인터넷을 비롯한 다른 전자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다. 종종 인터넷은 아나키의 살아있는 예가 되어왔고, 중앙정부의 권력 없이 성장하여 번영해왔다. 전자커뮤니

케이션은 국가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또한 인종이나 성 같은 문화적 장벽이 갖는 중요성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증가하는 의존도는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정보세대의 사회를 갈라놓는 경제적 장벽들을 강화시킨다는 뚜렷한 위험을 갖고 있다. 아나키스트들은 전자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여 이벤트를 계획하고, 중요한 뉴스를 널리 알리며, 정보를 교환해왔다. 스텡크프레스(Spunk Press) 같은 야심찬 기획 뿐만 아니라 이메일 발송명단, 유스넷 뉴스그룹들 같이 아나키즘과 반권위주의에 공헌하는 것들이 있다. 명백히 정부는 인터넷의 자유를 두려워하고,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한다(음란과 테러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아나키스트들은 전자커뮤니케이션에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중재된’,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는 관계들을 거부하며, 기술이 환경에 끼치는 해악 때문이다.

## 결론

요약해보면, 아나키즘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철학으로서, 스스로를 노골적으로 ‘아나키스트’라고 부르지 않는 수많은 개인들과 그룹들에 의해 어떤 형식으로도 적용되어 왔다. 아나키즘은 삶의 모든 국면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자유, 자기 결정, 개인적 책임, 직접행동, 그리고 자발적 행동의 창조, 상호보완성 등을 강조하면서, 아나키즘은 통찰력과 신축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조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방법을 제공하며, 그것은 세계를 개혁할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변화를 위해 작용한다. (끝)



초보자를 위한 아나키즘  
Introduction to Anarchism

리즈 A 하일리맨 지음  
조약골 번역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19번지 1층 해방촌 빈가게  
전화 02-6406-0040  
전자우편 [dopehead.zo@gmail.com](mailto:dopehead.zo@gmail.com)

가격 3,000원